

광양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포기한 적 없다”

시민단체 지정 포기 사과 촉구에 시 “주민 설득 시간 필요” 반박 주민 동의 아래 지정 추진 밝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광양시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온 백운산지킴이협회의가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정현복 광양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적 없다”며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서로 맞서고 있다.

광양시는 백운산지킴이협회에서 발표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포기과 관련, 지난 31일자로 자료를 내고 결코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운산이 광양시와 구례군에 걸쳐있고 구례군민의 격렬한 반대와 백운산을 생활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고로쇠 채취 농가 등 일부 시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민홍보 및 이해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유지였던 백운산 학술림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또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약초, 고로쇠 채취 활동 제약이 따르고 사유림이 국립공원에 편입돼 땅값 하락은 물론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현재보다 많은 불이익이 따를 것이 우려돼 주민 설득과 이해를 위한 상호공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운산지킴이협회는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하면서 지난 8년 동안 광양시민 8만3000여명이 서명 동의를 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운동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양시는 지난 1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무상양도 및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광양시의 입장을 들은 환경부는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백운산지킴이협회의의 국립공원 지정 포기 사과 성명과 관련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 백운산 봄 전경. <광양시 제공>

협회는 “시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포기는 정현복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이라며 “정 시장은 찬반 민원이 발생하면 항상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반대 민원이 발생하면 시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 줄 것을 회의 때마다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광양시는 일부 주민들

의 반대 민원이 대두되자 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보기도 전에 발을 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양시는 국립공원 지정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반대주민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아래 국립공원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한여름에도 17~18도 ‘폭염 프리존’ 광양와인동굴·에코파크 피서지 인기

이른 폭염에 ‘폭염 프리존’으로 알려진 광양와인동굴과 에코파크가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여름에도 17~18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 광양와인동굴에 최근 때 이른 피서객이 몰리고 있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와인동굴과 에코파크는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한여름에도 17~18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나 미세먼지 등 바깥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전천후 카멜레온존이다.

폭염이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온 지난 주말엔 700여명의 피서객들이 찾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초 광양읍 용강리에 전국 최초 동굴체험학습장으로 아심차게 개장한 광양에코파크는 갯벌, 암벽등반, 화석탐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로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신비감을 주는 동굴에서 암벽을 등반하고, 앞에서 깨어나 팔짱팔짱 뛰는 공룡을 만나며, 화석을 탐사하는 이색적인 체험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던 방식에서 다

양한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온전히 부합하는 광양에코파크는 학생들의 올 여름방학을 책임질 강력한 교육공간이자 창의공간이다.

인접한 광양와인동굴에서는 와인의 역사, 세계 와인 전시·판매장, 인터랙티브존, 오브젝트 팸핑, 미디어 파사드 등을 담은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세계 다양한 와인을 맛보며 낭만을 즐길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는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폭염 대피소인 에코파크와 와인동굴에서 건강하고 의미있는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27일까지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가 오는 27일까지 ‘YGPA(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공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공모 주제는 총 8개 분야, 18개 세부내용이며 총 상금 규모는 550만원으로 대상 200만원, 우수상 2건 각 100만원, 장려상 3건 각 50만원이다.

공모분야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된 ▲항만물류분야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산 ▲고객 서비스 개선과 편의성 향상 ▲인자리 창출 및 질 개선 ▲혁신기술 적용 및 활성화 ▲공정거래 확산 및 상생협력 강화 ▲적극행동 및 서비스 혁신 방안 ▲투명·윤리경영 강화 ▲국민참여·사회공헌 등이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http://www.ygpa.or.kr) - 열린항만-국민제안 게시판이나 이메일(ygpa@ygpa.or.kr)을 통해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제출(접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스마트도시 구축 재결심...조례 제정·사업 발굴 총력

광양시가 최근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스마트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란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광양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4차산업 ▲환경 ▲에너지 ▲안전 ▲문화·관광 ▲교육 ▲보건·복지 등 11개 분야에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등을 도출해 교통, 재난, 에너지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공동주최 중간 소문제를 해결하는 ‘Smart@Home’이 선정됐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 시행한 ‘사회현안 해결 지능정보화 공모사업’에 ‘차세대 자율 로봇’이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스마트 서비스 구축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달 13일~16일 열린 ‘2019 중국 선전시 스마트도시 포럼’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청돼 ‘대한민국 광양시,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13일~16일 열린 ‘2019 중국 선전시 스마트도시 포럼’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광양시가 초청됐으며, 포럼에서 시는 ‘대한민국 광양시,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스마트도시 광양’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광양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 전

반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서비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스마트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스마트도시 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 대응과 스마트도시 발전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강연 및 스마트도시 추진방안에 대한 토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 ‘제1회 어린이 상상화 그리기 대회’ 성료

포스코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가 회사 창립 51주년과 광양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제1회 어린이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 어린이상상화 그리기 대회는 광양제철소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광양지부가 주관하며 광양시가 후원해 지난 1일 백운그린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아이들이 꿈꾸는 멋진 미래도시 광양’을 주제로 하얀 도화지 위에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국회의원,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박정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정수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채수평 한국미술협회광양지부장 등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에 나선 광양제철소 직원, 어린

이 참가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수 행정부소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어린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광양의 미래모습을 마음껏 도화지에 그려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장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43개의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오는 10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암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